원오사, 도심 속 힐링 사찰로 중창

2월 23일, 명상문화센터 기공식

지하1층 · 지상4층, 연말 완공
명상 · 다목적실 · 솔밭쉼터 등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설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가 지역민을 위한 명상과 쉼의 공간을 마련하고 도심 속 힐링 사찰로 거듭난다. 원오사는 2월 23일 경내에서 '명상문화센터(가칭) 중창불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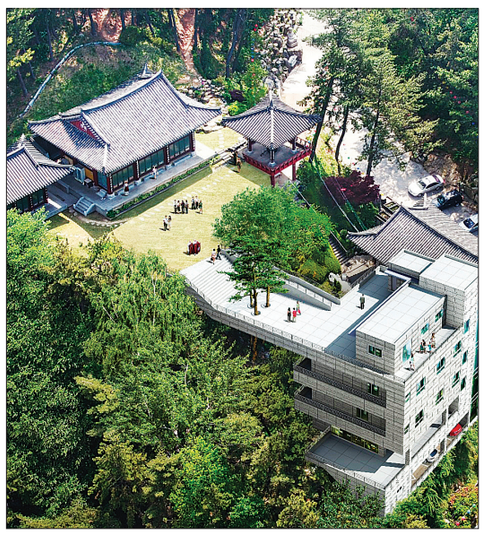
기공식은 기념 법회 후 인사말 및 기념촬영, 시삽식으로 마무리됐으며 통도사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 양산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 울산 해남자 주지 혜원 스님 등 통도사 극락문도회 소속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에서 통도사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은 "원오사가 중창불사로 새롭게 도약한다"며 "원오사는 불자 여러분들의 도량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힐링의 장소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참여한 대중에게 절을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인사말을 통해 감회를 전했다. 정관 스님은 "2012년 중창불사의 원을 세웠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신도님들의 마음이 모여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오사는 통도사 극락암 분원이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다. 2006년 통도사 극락암 선원장 명정스님의 도심 포교 원력으로 탄생해 지역민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다. 창건 이후 말기암 환자 지원, 지역민 주거환경 개선, 쌀 나눔,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나눔을 이어왔다. 특히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명정지역아동센터'를 열어 공부방을 운영했다. 명정지역아동센터 꿈나무 공부방은 부산지역 200여 개의 공부방 가운데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습 뿐아니라 문화교실, 다도수업 등 다채로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중창불사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개선을 계획하며 이뤄졌다.


원오사는 2월 23일 경내에서 '명상문화센터(가칭) 중창불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원오사 명상문화센터(가칭) 조감도.

주지 정관 스님은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공부방을 제공하고 싶다는 원력으로 시작을 했다"며 "원오사는 지형 특성상 가파른 길을 올라야만 대웅전 법당에 도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을 때 힘겨워 보이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도량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원오사 경내에 솔바람 명상길이 있다. 녹차밭을 가꾸고 쉼터로 조성해 지역민과 불자들 누구나 방문하고 편안히 걸으며 명상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지역의 힐링 사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오사 명상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지하1층은 주차장이며 1층은 공양간, 2층은 요사채 및 주지스님 접견실, 3층은 명상실과 다목적실, 4층은 종무소와 솔밭쉼터가 조성된다. 각 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4층은 뒤편 대웅전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법당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하 1층은 264㎡(80평)이며 1층부터 4층까지는 각 198㎡(60평)으로 연면적 1056㎡(320평) 규모이다. 명상문화센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문수복지재단, 어린이 마스크 전달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2월 16일 부산 남구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마스크 2만1500장을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 남구지회에 전달했다.

마스크는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 남구지회에 속한 어린이집 9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 스님, 이춘성 문수복지재단 이사, 우창원 큰빛어린이집(법인분과 남구지회장), 권성희 경성어린이집 원장(법인분과 남구지회 총무), 주미정 용호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전달했으며 남구 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광명사, 원아 및 가족수계법회 봉행

2월 19일, 원아 · 가족 123명 수계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2월 19일 경내 3층 지관전에서 '제1회 광명유치원 원아 및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명유치원 원아와 가족 그리고 교사 등 총 123명이 수계했으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불명을 받고 계를 수지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수계의식 전계대화상은 춘광 스님, 갈마아사리 설혜 스님(부산 해영사 주지), 교수아사리 탄성 스님(양산 양성사 주지)이 존증사(尊證師)로 수계를 증명했으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올리는 육법공양과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개도(開導)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자들이 참회진언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연비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삼보륜 도장을 팔에 찍는 것으로 연비를 대신했으며, 전계대화상 춘광 스님이 5계를 내리며 불자로서 자비와 청정을 지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2월 19일 '제1회 광명유치원 원아 및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문 후 춘광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불명을 직접 부르며 수계증을 전달했으며 모든 수계 가족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정진과 공덕의 삶으로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생활해 그 공덕을 회향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오늘 수계법회에 참석한 여러분은 다겁생의 지중한 인연이 있었기에 계를 받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가능했다. 계를 받는 것은 최고의 장엄이자 아름다운 상승법(相承法)이다"며 "계를 받아 지킴으로 해탈을 얻고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 계를 지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라"고 축원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가족들은 "새롭게 불명을 받은 감회가 새롭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선희 씨는 "보문심(普門心)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아들과 함께 계를 받아 느낌이 남다르고 수계의식이 장엄하고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의미가 더욱 깊이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우현 어린이는 "불명 청성(淸性)이란 의미에 어울리도록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명사 광명유치원은 1983년 개원했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상월원각대조사의 불교 이념을 근본으로 바른 인성을 가진 유아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야심경 독경 및 어린이 법회,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들차차(茶)시연 등을 통해 유아들의 생활 속에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금정산에 인접해 자연친화활동으로 건강을 돕고 있다. 현재 10개 반 260명의 원아와 20명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 대성암, 불교대학 입학식 개최


통영 대성암이 2월 17일 경내 법당에서 제2기 대성암 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이 2월 17일 경내 법당에서 제2기 대성암 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한글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발원문, 인사말,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쌍계사본말사연합회 회장 이암 스님, 나누우리 상임이사 통영 보현사 묵원 스님, 사천왕사 능륜 스님, 청련암 원명 스님과 신입생 15명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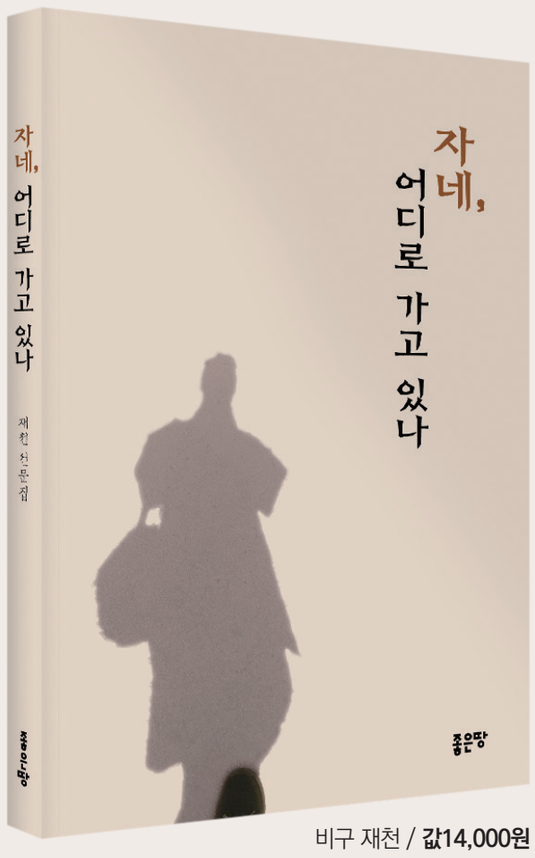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은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해서 아주 기쁜 마음이다. 통영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한다"며 "정법을 통해 행복하고 더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쌍계사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갖춰야 한다"며 "몸과 마음을 현재 생활에 집중하여 살피고 마음공부에 정진하면 행복을 성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성암 불교대학 강의는 사천왕사 능륜 스님이 불교입문, 청련암 원명 스님이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할 예정이며,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특강도 마련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교보문고, yes24, 네이버 쇼핑 등에 제목을 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구 재천 / 값14,000원

자네, 어디로 가고 있나

딸꾹질이 자기도 모르게 멈추듯,
일체중생이 하루빨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하기를 발원하며...

이 책은 「금강경」과 편지글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중, 주위 사람들이 저자의 글을 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겠다고 하여 정리하여 엮은 글이다.

글의 시작은 해인사 승가대학에 입방하였던 때이다. 입방 후 동안거를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어느 스님의 「금강경」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경을 보고 더욱 맛나게 기획, 편집하며 평생 공부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경전이나 불교 관련 서적을 인용하였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 시의 형식을 빌린 곳도 있고 길게 풀어서 쓴 곳도 있다. 어려운 한자나 생소한 단어들에는 저자의 해석을 추가해 놓았다. 중간중간 사진을 함께 실어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과 인연 닿은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다고 한다.



◈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사찰서점 판매중 ◈ 1권도 전화주문 가능 : 붓다북(구 운주사) 02-3672-7183 / 법우당 031-945-4535 좋은땅